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8호 [주제 제25491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
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를 비롯한 도

와 발전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거창하게 솟아오른 원산군민발전소 인제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인민들이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 자력갱생의 선구자의 영예를 안고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린 원산군민발전소는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하고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의 언제와 물길, 발전기실 위치도 잡아주시고 친히 『원산군민발전소』라는 이름도 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현신과 인민사랑의 체위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피끓는 심장마다 새겨안고 산악같이 펼쳐 일어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수십km의 물길을 뚫기와 근 200여만m³의 언제 쌓기, 수천m의 압력철관로공사와 발전기실건축공사 및 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발전소 종업원들을 위한 10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푸른 물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면서 멋있소, 대단하오,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오, 대자

연을 마음대로 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가 마련되었을뿐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킴으로써 강원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뉘원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제를 찾아오면서 보니 정말 산세가 힘하였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이런 곳까지 오시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었다고, 이 발전소는 장군님의 체위가 그대로 어려있는 유복자발전소, 우리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깃든 발전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의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기들에게 온갖 덕을 안겨주시려고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수령의

유훈관월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립으로써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협연의 정을 맺고 사는 강원도인민들이 우리 장군님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인 원산군민발전소의 대인공호수에 출렁이는 푸른 물은 강원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로 영원히 뜨겁게 흘러들 것이라고 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우리 장군님 말기고 자신 인민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경도, 불멸의 업적

따뜻한 정 넘치여 우리 인민은 행복하고 조국은 젊어진다

12월의 하루하루가 호되고로면 인민의 마음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더욱 불타오르고 그릴수록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께 아파이기고싶어 떼없이 그이와 심장의 말을 나눈다.

지난 5년간 인민의 실망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아파이기고 싶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이고 쌓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온 나라 대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이야기를 허불없이 들어주신다. 위대한 어버이께 아파이는 인민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그중에는 특별한 이야기도.

오늘도 조국의 북변땅 두만강안의 산과 강, 들에는 하늘에 떠여지게 흐는 내린다. 북방특유의 청바람은 동서천리를 넘나들며 불어온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운정이 넘쳐나기며 북변땅 인민들은 따뜻한 북계에 살고있다.

얼마전에 자연의 광활한 때문에 한지에 나았았던 그들이 위대한 사랑에 훈훈한 온기를 편세 살의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다.

참으로 꿈과 같이 여겨지는 현실이다. 그런 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눈물부터 앞서는 그들이다.

북부해역지역 인민들이 당한 재난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살림집 부터 마련해 주는 것을 복구전투의 선착적인 업으로 네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풍랑을 험하게 이끄시여 계약의 계획 우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을 만들하게 일미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을 제일 중대사로 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운정속에 회한 범천지, 멋쟁이 세계에서 형복한 생활을 누리는 인민들의 실상에서 우러나오는 도동당란세례,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북변땅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한식술 모두가 물리는 만세소리이다.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조국의 5년간은 이 리념 아래 후대했다. 태양의 빛과 열에도 비길 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땅 어파라없이 차운 달빛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을 정하고 새겨하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피눈물의 12월부터 떠오른다.

깊은 밤, 수도의 어파곳에 꾸려진 조의식장을 돌아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절임없이 물걸처오는 조의행렬과 호상을 서는 인민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로부터 조국에 방진경로명봉,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과 청년 학생들 지어는 유치원에 린들...

남으로 할것없이 그들 모두가 경진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려 조의를 표시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기고 가신 인민이 짹 치웠다.

그리하여 모든 조의식장을 몽족을 보시고 조의기 간 인민들의 전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여 인민들을 퇴짜를 모르고 조의행사를 치가 하도록 온정 어린 조치들을 취해 주시었다.

그리하여 모든 조의식장을 몽족을 보시고 조의기 간 인민들에게 퇴짜를 모르고 더운 물을 공급해주는 조치가 위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수많은 발언들이 품에 보내주시며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우수수에서 물려보는 드리고 조의식장을 위해 조례를 정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돌보아주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 인민은 피눈물의 일의 세계에서 도정에 우수님께서 세 계 시에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역사가 번창없이 흐르고 있음을 눈물을 머금고 철갑하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처는 그려움으로 가슴을 죄지고 있던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이 되는

뜻깊은 날 그 누구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비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일념으로 실상을 불태우시었는가를 다니 알지 못하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막판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에 애해야 한다고 드겁게 말씀하시였다.

피눈물의 12월부터 떠오른다. 깊은 밤, 수도의 어파곳에 꾸려진 조의식장을 돌아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을 해내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밟아온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고난의 행군

